매국노 애국자 신앙인 구분법

(예레미야 27:1~28:17)

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9.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1.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매국노 애국자 신앙인 구분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매국노 애국자 신앙인 구분법'
매국노와 애국자와 신앙인을 구분하는 공식은 우리 생활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국자에서 나라의 개념을 아내로 바꾸면 애처가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매국노에서 나라의 개념을 아내로 바꾸어서 매처노라는 말을 만들어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 그리고 영적인 남편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팔아먹는 부모, 영적인 부모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써 영적인 남편, 영적인 부모의 태도를 가져야만 하고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삼일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계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삼일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이유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일운동 때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삼일운동 당시에 일제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의 22%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22%라고 하지만 당시는 전 국민 중에 1.3%만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매국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일 것입니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세 사건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완용에 관련된 일화 하나를 소개해봅니다.

금강산에 해발 1105미터에 백운대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위에서 보는 경치가 참 좋아서 백운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내금강을 봤다고 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아침에는 백운대에서 흰 구름이 흩어지고 저녁에는 또 구름이 백운대로 모여듭니다. 이 백운대에 금강수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강수가 몸에 좋은 약수라는 소문이 있어서 이완용이 금강산에 갔을 때에 마시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금강산에 들어온 그 날부터 금강수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헛물켜는 사람을 보고 "이완용이 금강수 마시듯 하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완용은 1905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을사조약을 체결한 주동자입니다. 1907년에는 헤이그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 황제의 강제퇴위를 주도합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에 따라 한일신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에 나라의 인사권과 입법 및 행정에 관련된 주요 권한들이 모두 일본에 넘어갑니다. 1909년에는 이완용 단독으로 기유각서를 맺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넘겨버립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 1.3%만이 기독교인이었던 시절이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소외받게 된 상황에서 삼일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크게 주목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보면 삼일운동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BC.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고 BC.597년에 2차 침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의 기구들도 일부 바벨론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 4년이 지나고 나서 반 바벨론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예언을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권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전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셀 왕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이완용을 위시한 을사오적의 행위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주권에 굴복하고 70년간 이루어질 포로생활을 받아들이라니 애국자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모습이 27장과 28장에 걸쳐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명분에서 항상 불리했습니다. 조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조국에 긍정적인 예언을 했고 끝까지 바벨론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과 다를 바 없는 애국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국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의문이 생길 지경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11절 말씀에서 바벨론을 일본으로 치환해보면 보다 체감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본 천황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일본 천황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일본 천황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 그러나 그 목으로 일본 천황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런 소리를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확히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28장 2~4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 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이 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애국심으로 가득 찬 예언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니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가지는 애국심의 반대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대결 끝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예레미야와 갑론을박을 하던 시점으로부터 두 달 뒤에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 시대의 유다 민족과 비슷하기에 동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다 민족의 마음이 더욱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국심을 넘어서 신앙이라는 관점에서부터 따져 봐야합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에 거짓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주기도에 대해 살펴볼 때에도 위선 즉 거짓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땅에서 주어지고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 담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여겨집니다. 그 대상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나라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며 마음에 담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에는 늘 하늘을 담고 땅을 향해 직책을 수행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을 행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땅을 마음에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하고 교훈을 베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민이라는 자들이 하나님과는 별개의 계획과 생각을 마음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돈을 마음에 담은 상태를 묵인한 채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당사자들도 똑같이 땅을 마음에 담은 상태입니다. 또 건강과 장수를 마음에 담은 상태를 묵인하면서 설교를 하고 교훈을 베풉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역린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애국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마음에 품은 자들의 상태를 묵인하고 맞추어줍니다.

그러나 세상을 마음에 담아도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간답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곧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보배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인간다움은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을 담고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 인간다움을 잃었고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통해 인간다움을 실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선민의 사명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문제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보면 선민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조차 마음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선민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품어야 할 조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가정이든 조국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품으면 거짓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마음의 태도로 매국노와 애국자와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국노는 땅에 있는 조국을 팔아서 땅에 있는 이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매국노는 먼저 이득을 마음에 품고서 나라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땅에 있는 자신의 이득을 팔아서 땅에 있는 조국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마음에 조국을 먼저 품고 이득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조국과 이득의 위치가 반대이지만 둘 다 땅에 있는 것과 관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신앙인은 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신앙인은 하늘을 수입해서 살고 땅에 하늘을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즉 마음에 하늘을 먼저 품고 조국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자면 이완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주권 아래에 굴복하라는 권고의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완용과 결코 같지 않은 이유는 마음에 담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처럼 마음에 자신의 이득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국을 팔아서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채우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조국 이스라엘을 대하던 방식도 예레미야와 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 만세운동도 하지 않으셨고 독립운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신앙인이 조국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애국자들은 땅에 있는 이득을 포기하면서 땅에 있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한편 신앙인들은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기운으로 조국을 채움으로써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득이 포기되고 희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이득을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애국자들처럼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은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조국을 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득이 희생되거나 포기될 수 있을 뿐이지, 마음에 품은 나라를 위해 나의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보면 때로는 삼일운동에 참여해서 만세를 부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얼핏 매국노처럼 보이는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은 나라를 대할 때에 돌 맞을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예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이었기에 예레미야는 그 뜻이 조국에 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짓 신앙인들은 땅에 있는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하늘을 파는 자들입니다. 매국노가 땅에 있는 이득을 위하여 땅에 있는 조국을 파는 자들이었다면, 거짓 신앙인은 땅에 있는 이득을 위하여 하늘을 파는 자들입니다. 매천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땅의 이득을 품고서 하늘을 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애국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고 그로부터 먹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공식은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대신 아내의 개념을 넣으면 매국노 대신 매처노가 될 것입니다. 애처가는 땅에 있는 이득을 팔아서 땅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매처노는 땅에 있는 아내를 팔아서라도 땅에 있는 이득을 취하려는 자일 것입니다. 둘 다 땅에 있는 아내와 땅에 있는 이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인 남편은 땅에 있는 아내에게 하늘 기운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마음에 하늘을 품고서 아내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판검사가 되어야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녀 팔아먹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나도 호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내게 주어진 것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을 위해 땅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관점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는 자녀를 팔아먹는 부모도 아니거니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먼저 품고 자녀에게 하늘 기운을 전달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기운을 전달하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업을 인생의 과제로 삼고 모든 마음을 주어버리는 자는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한탕을 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사업을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업가는 하늘을 먼저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돈을 품은 것도 아니고 사업체를 품은 것도 아닙니다. 사업장에 하늘 기운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품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품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땅은 하나님 것이고 땅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품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늘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찢어지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잊지 않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만 마음에서 하늘이 품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늘을 품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말과 행동에 하늘 기운이 내려오고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신앙인은 절대 조국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품기 위해서는 조국에 대해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국에 대해 철저하게 죽고 마음에 하늘을 품은 자가 조국을 하늘 기운으로 채우는 애국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부부관계를 하늘로 채울 것이고, 사업체를 하늘 기운으로 채울 것이고, 내 삶의 현장과 자녀와의 관계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하늘 기운으로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하늘 기운으로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밝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면 하늘이 품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으면 세상을 품게 됩니다. 세상을 품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품지 않는다면 애국자도 거짓이며 매국노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거짓입니다. 신앙인은 하늘 기운을 조국에 수입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조국을 사랑하되 신앙인답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신앙인답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목숨 걸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늘을 품고 하늘 기운을 내뿜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